

2013년 8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

'갓길'
路肩

자동차만 해도 기계를 잘 아는
自動車だけでも、機械をちゃんとわかる

사람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人は絶対に無理しない。だから

오래 간다. 오일 교환과 타이어 공기압 등을
長く持つ。オイル交換、タイヤ空気圧などを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쓴다. 인간도 다를 바 없다.
維持するのに神経を使う。人間も変わりがない

다만 사람의 몸과 마음은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ただ、人の体と心は、これだけは必ずかなうという

목적이 있다면 약간 무리를 해도 견뎌낸다. 그렇다고
目的があれば、若干無理をしても耐えられる。そうして

항상 견뎌내는 것은 아니다. 몸과 마음을 제대로
いつも耐えられるのではない。体と心をちゃんと

손질해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쓰러지고 만다.
手入れしなければ、いつか倒れてしまう

- 소노 아야코의《간소한 삶 아름다운 나이듦》중에서 -
- 曾野綾子の〈簡素な人生に美しい年齢〉より -

* 고속도로에도
* 高速道路にも

갓길이 있고 휴게소도 있습니다.
路肩があって、休憩所があります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갓길에 세워야 하고
自動車に問題が起きれば、路肩に止めなければならず

운전자가 피로하면 휴게소에도 들러야 합니다.
運転者が疲れれば、休憩所に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마냥 달리기만 하면 고장이 나서 강제 멈춤을
ひたすら走れば、故障して強制停止を

당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갓길'이
受けます。人に一番よい'路肩'が

산입니다. 산에 오르는 순간
山です。山に登る瞬間

치유가 시작됩니다.
治癒が始まります

갓길

[명사]路肩; みちかた.

손질

[명사]手入れ.

[타동사](손찌검) 手出し; 手で殴ること.(=매질)

마냥

[부사]

ひたすら; 専ら; 全く.

充分; たらふく; 思う存分に; 十二分(...

[2013년8월27일 오늘의 아침편지]

어른 노릇
大人の役割

사람은
人は

주는 것으로 어른이 된다.
与えることで大人になる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年をとっても、誰かに私が持った

뭔가를 줄 수 있다면 여전히 청년이다.
何かを与えることができれば、依然として若者です

갓난아기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인간은
赤ちゃんの時から、大人になるときまで人間は

오직 받는다. 생기 넘치는 만년의 생활자들은
ひたすら受ける。生氣あふれる晩年の生活者は

하나같이 베풀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다.
一様に与えを忘れない人々だ

베풀을 잊지 않는 한, 그가 몇 살이든,
与えを忘れない限り、彼が何歳でも

몸이 불편하든 마음만은
体が不便でも心だけは

건강한 장년이다.
健康な青年だ

- 소노 아야코의《간소한 삶 아름다운 나이듦》중에서 -
- 曾野綾子の<簡素な人生に美しい年齢>より -

* '베푸는 사람'이 곧 어른입니다.
* '施す人'がまさに大人です

베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돈이나 물질,
施す方法は多様です。お金や、物質

아니면 시간으로, 손길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そうでなければ時間で、救いの手で、心で施すことができます。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히고 가슴은 열려야 합니다.
年を取るほど、口を閉じて心を開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가슴이 열린 만큼 지갑도 열려야 합니다.
心が開いたほど、財布も開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야 건강하게 어른 노릇도
そうして健康に大人の役割も

잘 할 수 있습니다.
ちゃんとすることができます

여전히

[부사]相変わらず; 依然として; 今もなお.

청년 (青年)

[명사]青年; 若者.

어른

[명사]

大人; 大人.(=성인(成人))

地位や親等が上の人; 上長.

結婚した男女.

노릇

[명사]

役割; 役目; 役; 本分.

(職業を卑しめて)稼業; 職; 業.

(처지·형편)困った事情; 事.

갓난아기

[명사]赤ちゃんの愛称.

만년 (晩年)

[명사]晩年.(=노년)(↔초년(初年))

하나같이

[부사]一様に.

베풀다

[타동사]

(자리를) (宴会·席などを)設ける; 張る; 催す...

(은혜를) (恵みなどを)施す; 恵む; 与える; (善政(ぜ...

물질 (物質)

[명사]物質.(↔정신)

손길

[명사]

(差し出す)手.

(手助けや救いの)手.

手の動き.

2013년 8월 28일 보낸 편지입니다.

타자(他者)의 아픔
他者のつらさ

타자의 아픔.
他者のつらさ

자신의 작은 상처에
自分の小さな傷に

물이 닿으면 그 아픔이 고통스럽습니다.
水がつけば、そのつらさが苦痛になります

상처가 없을 때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傷がない時、それを知らないのではないが

그 아픔을 기억할 정도로 우리의 기억력은
その痛みを覚える程度に我々の記憶力は

좋지 않습니다. 우리들, 타자의 아픔을
よくない。我々は他人のつらさを

알고 있나요.
分かっていますか

- 김유정의《즐거운 여름밤 서늘한 바람이 알려주는 것들》중에서 -
- キム・ユジョンの〈楽しい夏の夜、冷たい風が教えてくれること〉より -

* 자신의 아픔은 크고
* 自分のつらさが大きく

다른 사람의 아픔은 작게 느낍니다.
他人のつらさは小さく感じます

자기 손가락은 바늘 끝 하나의 고통도 자지러지지만
自分の指の針先ひとつの苦痛もみがすくむが

타자의 것은 도끼로 내리찍는 고통도 지나칩니다.
他人のことは斧で振り下ろされた苦痛も見過ごします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我々は時に、他人に傷を与え

'기억 상실자'처럼 잊어버리고 삽니다.
'記憶喪失者'のように忘れて暮らします

타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깊숙이
他人のつらさを私のつらさで深く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주보며
受け入れるとき、我々は向かい合っ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とも笑うことができます

서늘하다

[형용사]

やや冷たい; 冷やかだ; 涼しい.

ひやりと寒気がする(동사적).

(눈 따위가) (ひとみなどが)澄んでいる.

はりさき [針先]

바늘끝

자지리지다1

[자동사]

びっくりして身がすくむ; すくみあがる; 体が縮こまる.[큰...

(笑い声·泣き声·拍子取りなどのテンポ가)...

지나치다

[타동사]

(통과하다) 通り過ぎる.

(그냥 넘기다) やり過ごす; 見逃す.

[형용사]

度を過ごす; (度が)過ぎる.

(표준·정도) 度を越す.

마주

[부사] 向き合って; 向かい合って.

[2013년8월29일 오늘의 아침편지]

맛난 여행
美味しい旅行

지금도 밤마다 아이는
今も夜に子供は

여행지에서 매일 밤 엄마가 던지던 질문을
旅先で毎晩、母が投げた質問を

엄마에게 되물듯 다시 던집니다. "엄마! 오늘은
母に反問します"お母さん!今日は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뭐가 제일 신났어?",
何が一番面白い?、"何が一番にぎやかだった?"

"뭐가 제일 고마웠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何があったか?、"何が一番おいしかった?"

매일매일 가장 신나고 재미있고 고마운 일을 찾아
毎日一番賑やかで、面白く、有りがたいことを探す

나서는 일. 이것이 크로아티아를 다녀온 후,
こと、それがクロアチアに行ってきた後

요즘 나와 내 아이가 일상에서 만들어가는
最近、私と私の子供が、日常で作っていく

또 다른 맛난 여행입니다.
また別の美味しい旅行です

- 정유선의《아이와 함께, 크로아티아》중에서 -
- チョン・ユソンの〈子供とともに、クロアチア〉より -

* 여행을 다녀와서도
* 旅行に行っても

오래 기억되는 '맛난 여행'이 있습니다.
長く記憶される'美味しい旅行'があります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반추해도 늘 새롭습니다.
日常にもどって、もう一度振り返ってもずっと新鮮です

여행 중에 보고 듣고 느꼈던 일들이 새로운 이야기로
旅行中に見て、聞いて感じたことが新しい話で

다시 태어나 일상에 즐거움과 생기를 안겨줍니다.
もう一度生まれて、日常の楽しさと活気をもたらします

"엄마! 오늘은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お母さん!今日は何が一番たのしい?"

맛난 여행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美味しい旅行は今日も続きます

던지다

[타동사]

投げる.

a(멀리) (何かを遠く)放[抛]る; 投ずる[投じる].

(투신하다) (身を)投ずる; 飛び込む.

되묻다

[타동사]

問い返す; 聞き直す; 聞き返す.

反問する.

크로아티아 (Croatia)

[명사][지리] 国の名: クロアチア.

[2013년8월30일 오늘의 아침편지]

내 옆에 있는 사람
私のそばにいる人

내 옆에 있는 사람을
私のそばにいる人を

진정으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만큼
本当に理解して、認定してあげることほど

그 사람을 살맛 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その人が生きがいをかんじることもないだろう

장점은 인정하고 약점은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長所を認定して、弱点はあるままに受け入れるとき

그 관계는 더없이 친밀해지고 신뢰감이 생긴다.
その関係は、またとない親密で、信頼感が生じる

그러한 관계 속에 성장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そのような関係の中に成長があって治癒があつて

상대가 가진 가능성을 최고로
相手が持った可能性を最高に

발휘하게 하는
発揮するようにする

힘이 있다.
力がある

- 이영자의《아침고요 정원일기》중에서 -
- イ・ヨンジャの〈朝の静けさ庭園日記〉より -

*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 私の幸せも重要だ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私のそばにいる人も一緒に幸せ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내가 옆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私のそばの人に、認定を受けることも重要だが

내가 옆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私のそばにいる人を認定してあげることも必要です

내가 먼저 옆 사람을 살맛 나게 만들면
私がまずそばにいる人を生きがいを感じるようになります

나 또한 저절로 살맛이 납니다.
私もまた、おのずから生きがいを感じるようになります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에
私のそばにいる人の幸せに

20130830.txt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私の幸せがあります。

生き甲斐と楽しみを感じる 재생 (표제어:살맛)

살맛 나다

고요

[명사]

静けさ; 静寂.

[기상] 静穏.

저절로

[부사] 自然(にと); おのずと; おのずから; ひとりでに.[준말]절로.

2013년 8월 31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추은진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ュ・ウンジ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행복 정석
幸せの定石

아프리카 수단은
アフリカの Sudan は

'거꾸로 가는 세상'이다.
'逆行する世の中'だ

모든 것이 우리와는 반대이다
全てのことが我々とは反対だ

위치로도 그렇고 주어진 상황이나 삶의 방식도
位置も、与えられた状況や人生の方式も

그렇다. 정말이지 많은 것들이 이곳엔 없다.
そうだ。本当にたくさんのことがそこにはない

전기, 전화,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슈퍼마켓도 없다.
電気、電話、テレビはもちろんスーパーマーケットもない

간단한 자동차 부품이나 하다못해 나사못 같은
簡単な自動車部品やせめてばねのような

간단한 것들마저 구할 수 없어 나이로비에서
簡単なものさえ購入できないナイロビで

인편으로 가져올 때까지 몇 달이고
人づてで持ってくるまで、何か月も

기다려야 한다.
待たなければならない

- 이태석의《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중에서 -
- イ・テソクの〈友達になつてくれますか?〉より -

* '거꾸로 가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 '逆行する世の中'に生きる人より

가진 것이 훨씬 많은 우리는 그들보다 불평과 불만이
もったものが多い我々は、彼らより不平や不満が

더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さらに多くないか考えています。我々が簡単に購入できる

것들조차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는 곳에서
ことさえ、たくさんの時間と尽力が要求される場所で

그곳 사람들은 인내와 겸손을 배웁니다.
その人々は、忍耐と謙遜を学びます

조금 적게 갖고, 조금 느리게 살아가면서
ちょっと少なく持って、ちょっとゆっくり生きながら

퍼주어도 퍼주어도 닳지 않는 따뜻한 미소를
与えても与えても、擦り減らない暖かい微笑みを

소외된 이들에게 나누면 그것이
疎んじられた彼らに分ければそれが

행복의 정석이 아닐까요?
幸せの定石ではないでしょうか?

정석 (定石)

[명사] 定石; 定法.

위치 (位置)

[명사] 位置.

하다못해

[부사] (全力を尽くしてもできなくて) どうにもならなければ; せめ...

나사 (螺絲)

[명사]

ねじ; ぜんまい.

나사못의 준말

인편 (人便)

[명사] 人づて.

닿다

[자동사]

擦れる; すり減る.

(液体などが) 煮つまる.

皮膚が凍えて赤くなる.

소외 (疏外)

[명사] 疎外; うとんじてよそよそしくすること.(=소원(疎遠)·소척(疏斥))